



# 2008년도 사료업계의 전망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전략



손 근 남 (주)우성사료 축우PM 농학박사

## 1. 위기의 발단은 숨쉬는 문제에서

제 1영양소는 공기, 제 2영양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축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숨쉬는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지구촌의 온실가스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하에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는 현재 120개의 바이오에탄올 공장이 가동되고, 30개 공장이 증축, 78개 공장이 신축 중에 있다. 미농무성은 에탄올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가 전체 소비량의 14%(05/06)에서 2016/17년도에 무려 31%까지 급증하며 옥수수 재고량은 17.5%에서 5.7%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에탄올 생산용은 07년 10월 현재 32%를 이미 넘어섰다.

원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격의 급상승으로 바이오에탄올 채산성은 메릿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지난 5년간 옥수수 가격은 톤당 120불에서 300불로 2.5배 오른 반면 원유가격은 25불/bbl에서 90불/bbl로 3.6배로 뛰었다). 자동차가 옥수수를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옥수수 국제

가격은 지난해 1월, 140불/MT에서 금년 1월 220불/MT로 157% 상승한데 이어 11월 현재 300불/MT를 넘어섰으며, 사료회사들이 보유한 옥수수 재고량을 감안하면 금년 말을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사료 밥을 먹은 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심정이어서 낫을 들기가 부끄럽다. 그러나 단돈 1원의 비용을 점감하고, 1원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혜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유사 이래 축산업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히 이 글을 올린다.



## 2.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옥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대두 경작자가 줄어들어 대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옥수수, 대두의 수요 증가/공급부족은 밀에 영향을 주어 급기야는 사료용 밀의 수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자박, 채종박을 비롯한 박류는



가격상승은 물론 공급부족현상으로 사료업계는 가격고하를 막론하고 재고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여기에 콜리앗 급의 국제투기자본이 곡물시장에 뛰어들어 가격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농민들보다 재미를 본 것은 Cargill, 타이슨 푸드 등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이고, 이들은 최고기 수입에 압박을 가하는 배후세력이기도 하다.

### 3. 더욱 무서운 것은 물류비

여기에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특수로 인한 중국의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해상 운송료는 옥수수 톤당 130~140불대로 치솟아 1년 전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부르고 있어 곡물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양대 해운동맹인 구주운임동맹(FEFC)과 태평양항로안정화협의회(TSA)는 내년 초에 해상운임을 30% 인상하겠다고 11월 중순 예고하였다. 미국 옥수수 경작농장에서 톤당 137불(3.5\$/bu)하는 옥수수가 인천항에 도착하면 톤당 300불이므로 물류제비용(경작지-미국항-해상-인천항까지의 운송비, 상하역, 통관비,보험료 등)이 163불/MT(150원/kg)이며, 국내 물류비 20~40원/kg 를 추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내년 초

표1. 한육우 및 젃소 사육동향

		'87	'92	'97	'02	'07	%(07/87)
한육우	마릿수(천두)	2,135	2,019	2,880	1,461	2,220	104%
	사육호수(천호)	888	589	482	218	188	21%
	사육규모(두/호)	2.4	3.4	6.0	6.7	11.8	490%
젃소	마릿수(천두)	464	503	551	543	455	98%
	사육호수(천호)	39.9	28.5	18.4	12.0	7.8	20%
	사육규모(두/호)	11.6	17.6	30.0	45.2	58.3	501%

표2. 한육우 및 젃소용 배합사료 생산동향

	'02	'03	'04	'05	'06	'07	%(07/02)
비육우(천톤)	2,752	2,926	3,045	3,293	3,574	3,806	138%
두당 소요량(kg/년)	1,884					1,714	91%
낙농(천톤)	1,764	1,744	1,633	1,587	1,359	1,446	82%
두당 소요량(kg/년)	3,248					3,176	98%

해상운임이 30% 오르면 사료용 곡물가격은 40원/kg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된다. 바이오에탄올이나 오일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실로 물류비이다.

#### 4. 사육두수는 20년 전과 비슷, 농장수는 1/5로 줄어

지난 20년간 젖소 및 한육우 사육동향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릿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육호수는 1/5로 줄었다. 다섯 농가 중에 넷은 포기하고 하나만 살아남은 셈이다.

지난 5년간 비육우 사육두수는 52% 증가하였으나, 두당 연간 배합사료 소요량은 9%가 줄어들어 배합사료 생산량은 38%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젖소 사육두수는 16% 감소되고, 두당 연간 배합사료 소요량도 2% 감소되어 낙농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8% 감소되었다.

금년도 사료가격은 세 차례에 걸쳐 60원/kg이 인상되었고, 내년도 1/분기까지 최소 40원/kg의 인상요인(물류비 감안하면 80원/kg)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배합사료가격은 총 100원/kg이 인상되며, 비육우 두당 51만원, 경산우 두당 56만원의 배합사료비 상승이 추산 된다. 배합사료비가 생산비 중 차지하는 비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젖소는 20% 내외이므로 조사료, TMR 및 기타 경영비용의 상승을 감안하면 생산비용의 상승압박은 더욱 심각할 것이니 과히 비상사태라 하겠다. 어떻게 이 초유의 비상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 5. 19만 명이 하나같이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한다. 사료회사의 300마력짜리 펠릿기는 말 300마리가 동시에

끄는 힘과 같다. 소 키우는 생산자 19만 명이 하나같이 움직인다면 핵폭탄보다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 사료업계 종사자 8만명, 유업계와 유통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 축산 밥을 먹는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어떨까? 과거 WTO, IMF, 구제역, 광우병 파동의 격랑을 헤쳐 온 지혜와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 축산인들은 5년 후에는 이 땅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설 것이다. 당면한 FTA 협상과 미산쇠고기 수입재개에 맞서는 투쟁의 대열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축산 관련인들은 지원사격을 일제히 하여 공동의 밥줄을 지켜내야만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코스트 절감을 위한 노력과 효율 극대화를 모색하여야 하는 바, 특히 사료회사는 사료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각종 비용의 절감을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해야만 한다. 생산농장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의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산 이력제의 실천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공동의 밥그릇을 지켜내는데 동참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기 밥그릇 채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4/5의 동료 양축기들이 축산업을 떠나게 한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이스라엘의 축산농민과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며, 결국은 이웃과의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임을 상기하고, 생산비 절감요인을 찾아내고, 생산효율과 경영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품질 좋고 안심하고 먹을 있는 쇠고기와 우유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석유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식량위기 시대의 백척간두에 내몰리는 현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농민, 농축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며, 전체 국민과 전체 산업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식량안보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